

100주년 기념사업회

갑오농민혁명 100주년기념

하계심포지움

## 갑오농민혁명과 민속

일시: 1994년 7월 9일(토)~10일(일)

장소: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제1회의실

주최: 한국역사민속학회

후원: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협찬:  有限會社 東 星



## **갑오농민혁명과 민속**

-갑오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한국역사민속학회 하계심포지움-

일시: 1994년 7월 9일(토)~10일(일)

장소: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발 행: 한국역사민속학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670

(우: 140-013)

Tel: 02) 790-6974

---

##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원가입안내

### ☞ 회원의 구분

- 일반회원: 본회의 뜻에 동참하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연구회원: 본회의 뜻에 동참하는 전문연구자(대학원 석사과정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

### ☞ 회원에 가입하는 방법

- 일반회원: 원서1부를 작성하시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구회원: 원서1부를 작성하시고 연회비 6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3만원)

### ☞ 회원께 드리는 혜택

- 본회의 정관과 사업계획에 의거 제반 연구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학회지(연 2회 발간) 및 회보(연 2회 발간, 학회지와 엇갈려서 발행)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가입접수

월례발표회 현장에서 접수를 받으며, 학회 연구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 025 - 01 - 0275 - 223 박경하

### ☞ 연락처(:학회연구실)

[140-01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 - 670 (Tel: 790 - 6974)

---

갑오농민혁명 100주년기념

하계 심포지움 자료집

## 갑오농민혁명과 민속

주최: 한국역사민속학회

후원: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행사일정표

## 주제 발표

제1일: 7월 9일(토)      사 회: 김갑동(원광대 국사교육과 교수)  
개 회 사 (13:30~13:40)      \ 장철수(본회 회장)  
환 영 사 (13:40~13:50)      \ 김삼룡(원광대학교 총장)

제1주제 甲午農民革命과 두레 \ 주장현(경희대 국문과 강사)  
(13:50~14:40)      토론: 정진영(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제2주제 甲午農民革命과 民俗信仰 \ 김홍철(원광대 동양종교학과 교수)  
(14:40~15:30)      토론: 윤승용(서울대 종교학과 강사)

제3주제 甲午農民革命과 民譚 \ 박맹수(원불교 영산대학 교수)  
(15:40~16:30)      토론: 유영대(전주우석대 국문과 교수)

제4주제 古阜蜂起와 堂山祭 \ 송화섭(원광대 국사교육과 강사)  
(16:30~17:20)      토론: 이해준(목포대 사학과 교수)

## 종합토론

(17:30~19:00)

사 회: 박경하(중앙대 사학과 강사)

김기덕(건국대 사학과 강사) 김명자(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나승만(목포대 국문과 교수) 나종우(원광대 사학과 교수) 박영학(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순철(원광대 사학과 교수) 양은용(원광대 동양종교학과 교수) 윤승용(서울대 종교학과 강사) 이수자(이화여대 국문과 강사) 이진영(전북대 사학과 강사) 장철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승모(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정종수(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조경만(목포대 인류학과 교수) 최광식(효성여대 사학과 교수) --- 가나다순

19:00 숙박지(원광대 변산 임해수련원)로 출발, 1박

## 현장답사

제2일: 7월 10일(일)

현장안내: 박맹수(원불교 영산대학 교수) · 송화섭(원광대 국사교육과 강사)

숙소 ⇒ 무장(객사문, 향교) ⇒ 공음(건동리미륵·도곡미륵) ⇒ 갑오농민혁명  
발상지(구수마을) ⇒ 창의문포고지(당산골) ⇒ 정읍(중식) ⇒ 정읍 원백암마을  
(남근·장승·여근곡) ⇒ 정읍역(서울출발)

# 目 次

## 갑오농민혁명과 두레: 주장현(경희대 강사, 민속학) ..... 1

1. 머리말 ..... 1
2. 두레의 농민생활사적기반과 그 변혁성 ..... 1
3. 갑오농민전쟁시기의 두레 ..... 10
4. 몇가지 과제 ..... 13

## 韓國 民間信仰이 東學革命에 미친 影響 ..... 14

: 김홍철(원광대 동양철학과 교수)

1. 序 言 ..... 14
2. 東學革命 당시 民間信仰의 傾向 ..... 14
3. 民間信仰이 東學革命軍에 미친 影響 ..... 15
4. 結 言 ..... 21

## 이야기와 東學農民革命: 박맹수(원불교 영산대학 교수) ..... 22

1. 이야기의 가치와 중요성 ..... 22
2. 동학농민혁명과 이야기 ..... 25
3. 남은 과제 ..... 27
- <부록: 동학농민혁명 관련 이야기 및 연구논저목록> ..... 28

## 古阜蜂起와 堂山祭: 송화섭(원광대 국사교육과 강사) ..... 30

1. 머리말 ..... 30
2. 전라 우도지역의 마을굿 ..... 31
3. 정읍·고창지역 당산제의 특징 ..... 34
4. 고부봉기의 동기와 배경 ..... 37
5. 당산제와 갑오농민혁명 ..... 39
6. 결 론 ..... 41



# 갑오농민혁명과 두레

주강현 (민속학,경희대 강사)

## 1. 머리말

중세사회, 특히 조선후기사회 변혁운동에서 생산조직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 발표자는 일찌기 「조선후기 변혁운동과 민중조직」(1988:역사비평)이란 글에서 생산조직의 변혁운동조직으로의 전환과정을 주목하였거니와, 본 발표는 동학과 관련하여 당시의 시각을 그대로 연장해볼 뿐이다. 조선후기 두레의 변혁성을 따지는 시각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견이 없는 상태로 연구방향이 가닥 잡히고 있다. 다만 민중생활사에서 두레가 차지하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는 지경에, 발표자가 오랜동안 수행해온 두레 현지조사방법론에 기초하여 두레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본 발표는 두레가 변혁조직으로 쉽게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농민생활사적인 측면에서 일차 정리해보고,두번째로 실제 두레가 중세사회,특히 갑오전쟁의 와중에 두레조직이 어떤 측면에 기여하였을까 하는 문제를 거론해보기로 한다.

## 2. 두레의 농민생활사적기반과 그 변혁성

조선후기 농민생활에서 두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기만했다. 두레는 나름의 계의,노동,놀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질을 가지므로서 그 공동체성이 확보되었고 유사시에는 민중변혁조직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졌다.

## 2.1. 제의와 관련하여

### 2.1.1. 들들들기,진서턱,주먹다듬이

두레굿 의례의 첫 관문이다. 미성년자가 16-17세가 되어 성년으로서 두레에 가입하는 의식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주먹다듬이가 많이 쓰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러한 의례들은 개인의 지위 이동에 따른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례인 것이며, 노동담당자로서 생산활동에 참가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신입례로서 가입신청자는 주연을 베푸는 소위 '진서턱'을 거쳐서 마을의 일체의 노동행위에서 1인의 성인 노동력으로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이러한 성년식은 비록 개인이 공동체에서 겪어야 할 통과의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두레굿에 참여하는 총체적 대동제의의 첫관문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생산 농민 대중의 성년식은 양반 지배계급의 성년식과 대비되는 바, 농민들은 힘사랑을 한다거나 육체적 노동 담지능력의 증거를 통하여 공동 노동조직에 들어가는 데 반하여, 양반들은 관례식을 거쳐 지배계급을 상징하는 관을 쓰게 되고, 붓· 먹 등을 하사받아 장차 지배계급의 세계로 편성되는 신분사회의 양태를 볼 수 있다. 이는 문헌상으로는 진쇄책 같은 마을문헌에 더러 확인되고있을 뿐이나 현지조사 결과 전라도일대가 가장 집중적이다.

즉, 주먹다듬이 풍습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입례로서 "들들들기"(혹은 '들독들기') 풍습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들들은 거개가 마을의 신목(혹은 정자나무)밑에 둔다. 대·중·소로 무게가 다른 둥근돌을 모셔두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하나, 들들의 주 기능은 역시 7월 백중철에 하는 들들들기 풍습이다. 마을의 청장년들이 시원한 나무밑에 모여 들들을 들어 힘을 겨루고 장사를 뽑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수총각을 뽑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였으며, 임금을 곱절로 받게되는 척도도 되었다. 동시에 마을의 청소년 층에서 들들을 들게하여 두레에 가입할 자격을 심사하는 예가 많다. 지금도 전라도나 충청도 일대에 가면 들들들기 풍습이 간혹 남아있으며, 예전에 들던 들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경남 밀양지방에서는 '힘발림'이라하여 아홉장사의 이야기인 구장동(九將洞) 전설과 더불어 이와 비슷한 놀이가 전해진다. 제주도에서는 '똥돌'이라 부르고 있으며, 동리어귀에 돌을 두어 마을청년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힘을 겨루는 구실을 해내고 있다. 똥돌이나 들들이나 같은 목적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들참례·바구리·나다리 등으로 불리우는 신참례는 신입례의 통과의례적 성년 가입식에 반하여 신입촌자(新入村者)의 가입의례적 성격을 지녔다. 즉 주먹다듬

이와 신참례의 의례를 통해서 공동노동조직 가입이 엄격한 통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공동체의 동료 입회가 일정한 공동체적 규약에 의했다는 사실은 두레조직의 공동체적 강제성을 보여주며, 탈퇴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외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일하는 생산계급끼리의 엄격한 규율과 연대성을 알 수 있다. 바로 신입례는 이러한 작업 공동체에의 새로운 성원의 참여의식이자, 공동체 자체로 본다면 젊고 기운 좋은 노동력있는 성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두레 자체의 세대를 교체해 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 의미가 내포된 노동의례이다. 따라서 두레는 언제든지 노동력에 충만한 사람들로 충만되어 있는 ‘힘있는 조직’이었으며,이같은 생활상의 강고성은 이후 변혁운동의 일정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본다.

### 2.1.2. 호미모듬

호미모듬은 두레작업 시작 직전에 두레꾼들이 농청에 모여 역원(役員)을 선출하고 공동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작업을 준비하는 날,각각 자기의 호미를 한개씩 농청에 모두어 거는 의식이다. 두레일이 시작되기 전에 호미를 농청에 걸어두는 것이 관례였으니 호미모듬의식은 일도구의 의식을 통하여 작업에의 결단과 준비를 매듭짓는 노동의례라 하겠다. 이는 호미걸이에 반대급부되는 행사로 인정된다.

조선후기에서 농청원들이 두레를 짜는 호미모듬의 시기는 대략 음력 2월로 추정되나 문헌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전라도의 경우 ‘하야드렛날’ 행사가 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혹은 2월의 절기인 ‘머슴날’(혹은 奴婢日)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농업의 특징적 농기구로 쟁기, 호미, 가래 셋을 들 때 호미는 가장 편리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며, 특히 한 해 농사의 고비인 김매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손도구다. 호미는 노동집약적 수도작농업의 대표적 농기구인 탓으로 노동의례의 상징물인 것이다. 즉, 호미모듬은 호미를 매개로하여 두레의 공동작업의 재편성을 확인하는 표시임과 동시에 두레의 단결을 다짐하는 대동의례인 것이다. 바로 일도구를 중심으로 생산의례를 집행하는 것은 노동자체에 대한 엄숙한 자기결단이요, 일과 놀이, 일과 의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통일된 하나로서의 노동조직의 공동체적 삶의 특질인 것이다. 무엇보다 호미모듬의 대동의례를 거쳐서 민주적인 일 조직 위계가 결정되는 것이니, 한해동안 마을 공동체의 전 농지를 공동 경작할 노동조직의 역할 분담은 곧 노동행위의 엄격한 내부적 규율과 조직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 노동생산대중들끼리의 굳건한 연대감을 나타내는 민중조직화 작업이 된다. 즉 민중조직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의 장이 곧 두레곳의 대동제의에서 호미모듬에 해당된

다.

물론, 이 역시 전국적인 현상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었을 뿐이니,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두레가 분화된 이후에는 모내기가 파한 후에 정자나무 밑에 모여서 두레를 조직하는 간략한 모임으로 축소되었다. 모내기와 김매기를 연이어서 이어나가야 하는 시간적 바쁨 속에서 한가하게 호미모듬을 할 여력이 없었던 탓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대개 지역의 민속조사에서는 모내기가 파한 후에 정자나무 밑에서 두레를 짜는 간단한 모임으로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이같은 회의는 바로 두레꾼들이 민주주적의인 수평관계로 임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평소의 민주적인 회의들은 유사시에 변혁운동조직으로 나아갈 토양을 제공하고 있던 셈이다.

### 2.1.3. 두레기의례

두레풍물패의 상징은 두레기에 주어진다. 따라서 두레에서 행하는 일상적 의례의 중심도 두레기를 모시는 일로 집중되어 표현된다. 두레기는 흔히 농기라고 부르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지니고 있으니, 용당기·용덕기·덕석기·용술기·대기·서낭기·대장기·농상기 등 다양하다. 명칭의 다양성 만큼이나 기의 글씨도 다양하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을 쓰기도 하나 고행(古形)의 두레기들은 '신농유업'(神農遺業)같은 글도 자주 썼다. 두레기에는 용 그림이 그려진 경우도 많은데, 이는 관념적 형태의 수신·용신을 기원하여 물을 중시하는 논농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의미였다.

바로 이러한 두레기에 대한 의례는 두레공동의례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 농민들의 자긍심 표시이기도 하였던 두레기라 모든 두레 행사가 기를 중심으로 집결되고 마무리되었다. 두레기는 대단히 큰 기여서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센 장정들만이 들 수 있었다. 두레 농사를 지으러 나갈 때는 으레 두레기 앞에서 풍물을 울려 두레고사를 울리고 나갔으며 일터에서도 논둑에 기를 꽂아두고 일을 하다가 멀리 이동할 시는 반드시 기를 옮겨놓고 일을 하였고, 돌아올 때에도 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치면서 돌아왔다. 대개 기고사를 행하는 방식은, 기를 꿰뚫고 풍물을 친다거나 막걸리를 주위에 뿌려두고 고사반으로 행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영기 2개를 가로질러 세워놓고 술을 부어 기고사를 행하였다.

두레기는 대개 큰 대나무장대에 매달며, 꼭대기에는 팽장목이라해서 팽털로 만든 것봉을 꽂고, 그 밑에 총을치(쇠를 벗겨서 하얗게 된 것을 머리풀듯 풀어헤친 것)를 달

고, 장대에 3개의 '버레줄'을 달아서 말뚝으로 고정하여 세워 두었다. 깃폭은 비를 맞지않게 떼어내고 장대는 큰 집의 처마에 걸쳐서 보관하였다. 두레기의 생김새는 두가지인 바, 좌우로 길게된 기와 상하로 길게 늘어뜨린 형태가 공존하였으며, 현재의 농기들이 대개 상하로 길게 된 것과 대비된다. 그 밖에 정방형의 기도 존재하였다. 깃폭 끝에는 긴천을 대어서 바람에 나부끼면서 운치를 더해 주었고, 깃폭의 가재이에는 '지네발'이라고 곡선의 천을 덧대었다. 두레기는 매우 존엄한 것이어서 말탄 양반도 두레기앞을 지날때는 누구나 내려야 했으며, 마을간에 두레기를 뺏으려고 두레싸움이 크게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만큼 두레기는 농민들의 자긍심의 상징이었다.

두레기는 비단 농사일에만 쓰이지 않았으니 마을 풍물패가 걸립을 뜰 때에도 반드시 기를 세우고 판을 벌였다. 다른 마을의 기가 마을로 들어올 때도 예의를 갖추어야 했고, 심지어는 남사당패가 마을로 놀이판을 벌이려고 '곰뱅이'를 뜰 때도 마을기에 인사를 드려야 했다. 두레기가 마을 당산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의식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례였으니, 기를 중심으로 하여 형두레와 아우두레가 서열을 정해두고 벌이는 기세배놀이 등도 이러한 두레기 대동의회가 전화된 결과물인 것이다. 작업도중에도 먼데서 타동 두레를 보게되면 '종고울린다'고 북을 등등 울려서 상호 인사를 해야 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두레싸움이 벌어졌던 일도 두레기 의례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유사시에 이같은 마을표식 깃발이 그대로 농민동력의 상징적 구심점으로 활용되었다. 두레의 커다란 농기를 들고서 장거리를 이동 할 수야 없었지만,마을표식깃발과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의미가 결합된 기를 중심으로 단결되는 구심점은 동학농민전쟁에서라고 예의가 아니었다. 특히 군령을 상징하는 영기는 직접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1.4. 호미걸이,호미씻이

호미걸이는 두레의 최대의 축제로, 이는 농민축제라 할 수 있으니 1년 농사의 실제적 마무리인 7월 15일을 전후해 두레의 농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폭발시키는 두레굿 의례의 절정이다. 호남에서는 호미씻이라 부르나 경기지역에서는 호미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전자는 농사가 파한 뒤에 흙 묻은 호미를 씻어낸다는 뜻이고, 후자는 두레기의 버릿줄에 주렁주렁 호미를 걸어두었으므로 사실상 한해농사가 마감을 했다는 내력을 지니고 있다. 둘다 뜻은 같다.

호미씻이가 본격적으로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대략 조선후기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양법의 전면적인 전개와 더불어 두레가 강화되어나가고 호미씻이 풍습

도 민중생활 곳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 『천일록』(千一錄)에서 “ 산간지대와 평야지대를 막론하고 매년 7월 보름날에는 농가의 남녀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모여서 노는데 이것을 호미씻이라고한다 ” 하였으니, 17~18세기 경에는 두레의 보급과 더불어 호미씻이풍습도 전면적인 것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미씻이에 이루어지는 두레굿은 마지막 논매기인 ‘만물’시 농사순방(農事順訪)에 결들여 당산의 절군악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농신(農神)내리기·들돌이·농신굿·판굿과 같은 절차가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마치 별신굿·당굿·서낭굿과 같은 마을굿의 의식구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마을굿에서 신대(神竿)나 서낭기(神旗)로 신을 내리고 마을굿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두레굿에서도 농기를 들고 풍물을 울리면서 농신을 내리고 나서 두레굿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마을굿과 두레굿의 대동미가 결국 생산의례로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두레굿 의례는 백중절의 절기에 관계된 절후이니 호미씻이에 관계된 풍습 자료들은 두레굿 의례가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두레굿의 호미씻이 대동제의는 농민층의 공동체적 단결로서 농민문화의 핵이라 할 수 있다. 농민층의 대동된 제의는 곧바로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한 응집력으로 나타났고, 두레에 관한 강력한 자긍심은 농사장원(農事壯元)이란 자신감에 충만한 제의구조를 택하게 했다고 본다. 이 두레장원의 관습은 양반문화에 대한 두레농민들의 대항의식과 두레 공동노동 자체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나타낸 관습이다. 또 양반층으로서는 농민층의 노동과 분배에의 욕구를 배출시킬 수 있는 통로로서 두레굿을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을굿의 전투성이 석전 등의 대동놀이에서 드러났다면, 두레굿은 두레굿 자체에서 엄청난 전투성을 발휘하였고, 이는 일하는 민중심성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생산계급의 대동제의가 지닌 축제 자체의 해방적 생산력, 혹은 축제의 재생산 구조를 의미했다고 본다. 몇가지 결론을 두레굿 의례의 절정인 호미씻이의례에 국한하여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1> 두레굿 의례는 보통 일상적인 두레노동 시에 행했던 소박한 의례와 백중날 행했던 본격적 의례로 나누어 설명된다. 평상시에도 필히 농기를 앞세우고 논둑엔 농기를 세운 후 풍물을 치거나 술을 뿌렸음은 농신에 대한 일상적 의례로 보여진다. 반면 큰 두레날엔 꽃반도 놓고 뜰밧이도 하고 당에 가서 제도 지냈다.

<2> 마을굿의 제의가 올려지는 당이 두레굿에서도 그대로 쓰여졌다. 즉 당(혹은 堂木)은 신앙적 의미의 성소(聖所)일 뿐 아니라 생산 곳터로도 사용되었다.

<3> 마을굿에 있어서의 지신밧기와 마찬가지로 두레굿에 있어서는 가가호호 뜰밧

이가 행해졌다.

<4> 논에서 논으로 이동 시도 옷을 갈아 입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일하는 계급의 신명을 돌구는 의미이자 동시에 일과 놀이적 의례가 정확히 구분된 의례적 공간의 의미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갈아 입는 옷은 의례에 참가하는 의례복인 것이다.

<5> 마을굿 의례의 엄숙한 금기적 분위기에 비하여 질편하고 난장적인 놀이적 분위기로 의례를 이끌고 있으며, 무엇보다 풍물이 중요한 구실을 하는 제축적 의례이다.

<6> 두레패 편성에 있어 영기·용대기·풍물패가 나가고 있음은 마을굿 의례의 신대·풍물패가 나가는 순서와 일치한다. 즉 신대와 농기는 상호 대비됨으로써 다산(多産)에의 희구를 알 수 있다.

<7>마지막 세벌 김매기 이후에 큰 호미씻이 의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노동의 집중적 노고를 일시에 해결코자 하는 본격적 생산제의라 할 수 있으며, 생산 담지자들의 노동의례라 불러 마땅하다. 여기서 놀이와 제의는 이미 하나로 통일되어진다.

## 2.2. 두레의 회의와 관련하여

두레굿의 대동회의는 공동노동조직의 노동회의로서 대개 농업경영, 공동노동, 공동체 조직, 역원 선출, 회계결산, 상호부조, 두레풍물, 품앗이, 두레굿의례, 놀이등 농업생산과 결부된 마을공동체의 대소사를 취급했다. 이 역시 마을굿의 대동회의처럼 전후 2회로 설명된다.

### 2.2.1. 두레농사 전의 회의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마을굿을 치르면서 한 해의 시작을 신명나게 놓고서 마을굿의 대동회의를 통하여 1년간의 대소사를 결정지었다면, 호미모듬은 대략 3월이 되기 전 농경사회의 실제적인 농사준비를 시작하는 예비모임이랄 수 있다. 무엇보다 두레 재조직및 역원선출, 신입례및 신참의례집행, 농사지을 경지의 순서 결정, 두레셈의 기본원칙 확인, 농악기 보수및 구입, 호미를 농청에 모두는 의례등 제반 준비를 집행하고 대동적으로 놀았다.

그러나 두레를 짜는 모임이 반드시 정월로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가령, 경기나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모내기 파한 후에 이루어졌다. 당곳 자체가 가을에 집중되어있는 경기지역에서는 대개 모내기가 임박해서 열리거나 모내기가 파한 후에 열렸다. 달리보면, 두레농사 전 회의시기의 시간적인 차이는 두레가 분화된 이후의

일일 수도 있으나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사전 회의를 통하여 두레조직은 생산활동 자체를 체계있게 수행하기 위한 작업체계 및 문화조직체계를 나누어 짰다.

### 2.2.2. 두레농사 후의 회의

초벌·두벌·세벌 김매기가 끝나고 사실상 한해 농사의 고비가 끝난 7월 15일 백중절을 전후하여 호미를 씻으면서 동시에 회계결산을 하였다. 여기에서 한해 농사의 정확한 셈을 가렸으며, 악기보수, 마을 대동살림 해결, 마을 대소공사(길닦기, 풀베기 등)해결등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결산을 끝내고 대동적으로 놀았다.

즉 농사 전의 호미모듬 대동회의는 공동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전 두레꾼이 농청에 모여 농사(農社)의 역원(役員)선출, 작업분량과 작업순서, 악기구입 및 보수, 임금의 결정, 기타 품앗이, 공동농구의 이용, 보의 공동이용 등 한 해 농사의 중요한 대소사를 논의하고 호미를 모두는 의례적(儀禮的) 회의이며, 후의 호미씻이는 한해 농사의 마지막 세벌 김매기를 끝내고 두레 풍장굿을 하면서 풍물과 대동제의, 음주가무의 향연과 더불어 1년 농사의 총결산인 회계정리 작업에 따른 셈을 하며, 공동노동의 보수를 균등하게 정리하는 가운데 호미를 씻어 두는 의례적 회의이다.

평상시에는 위와 같은 구실을 담당했지만, 외침. 내침이라는 외세와의 싸움이나 지배계급에 대한 민란의 봉기 시에는 싸움을 위한 전투조직원의 결사회의였다. 즉 가장 왕성하게 전투력을 보유한 세대가 청장년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두레조직의 공동노동 성원들에 해당했으니 유일하게 민중들 사이에서 평상시에 조직력과 규율을 갖추고 있는 회의체는 두레밖엔 달리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란 조직의 최저면 수준에서 농민군의 조직에 두레가 활용되었으며, 두레꾼의 풍물이 전투적인 질군악으로 쓰여졌으며 두레조직이 곧바로 민란의 조직으로 되있는 바, 동학의 집강소가 단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었고, 마을 단위의 자주적 행정력은 발휘하게 되었던 이면에는 이러한 공동노동 생산회의의 존재가 밑받침되었던 것이다.

## 2.3. 두레의 놀이와 관련하여

두레와 관련하여 대동놀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일과 놀이의 순환이라는 점이다. 일과 놀이의 순환은 두레곳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과 놀이가 하나가 되어 노동이 곧 즐거운 유희고, 작업터가 곧 놀이터가 되도록 노동의 중압감을 중화시켰다. 풍물은 이미 단순오락이 아니고, 농사꾼이 쇠꾼이고, 놀이패가 두레패이며,

노동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매체였다.

일과 놀이가 순환되는 두레곳의 공동노동행위는 노동의 일방적착취라는 노동소외의 물화된 세계가 아니라, 일과 놀이가 하나로서 통일된 통일적 세계를 대동적으로 구현코자 하였다. 그러한 '일과 놀이'의 연속성은 두레의 농청(農廳)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속놀이들을 창조발전시켰다.

일과 놀이에 덧붙여 싸움과 놀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곧 '싸움적 놀이', '놀이적 싸움'이란 통일된 범주로서 정리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놀이'라는 용어 속에는 본질적으로 싸움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에 의해 놀이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가운데 싸움의 진취성을 은폐·마멸시켜 나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멋모르고 놀이와 싸움을 완전히 양립되게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유희성에 충만한 놀이라거나 단순 오락화된 놀이도 산재하나, 대동놀이의 기본 성격 속에는 싸움이라는 상호대립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

싸움의 제축은 이미 '놀이적 생산' '생산적 놀이'이다. 이는 한 공동체가 집단적 통과제의를 거치면서 겪는 시련으로서의 편싸움이며, 사회적 계급의 갈등이나 공동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성의 갈등까지 해결코자 한다. 신구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분기점, 또는 그 같은 대립이 첨예화되는 시점에서 베풀어지는 통과제의가 그 대립들을 인간행위로 담았을 때 각종 편싸움이 생겨난다고 본다. 동편과 서편 마을의 싸움을 통하여 암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줄다리기같은 편싸움은 생산력의 유감주술을 통하여 남녀의 성의 대결, 동과 서의 마을간의 갈등 등을 극복코자 하는 것이다. 이는 대개의 대동놀이에 있어 생산력의 회구를 편싸움을 통하여 해결코자 하는 것이다. 두레곳에서 두레풍물패가 곧바로 민란의 주력군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 많은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언급되어온 다음 자료를 다시 한번 참조할만하다. 이미 "백년민속"이 되어버린 두레의 풍장들을 "국가에 후환이 된다"하여 어찌 국가에서 압수할 수있겠는가 하는 논의과정이다.

두레곳의 장원례에서 소등에 상머슴을 태우고 힘차게 풍물을 치며 두레의 강건한 농민대중의 위세를 펼쳤음은, 일에서 해방되어 지배계급에 겨냥하는 농민대중의 자신감의 표현이렀다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서 민란 시에 두레풍물패가 곧바로 군악으로 바뀌어 농민군을 이끌고 전투적으로 싸움에 임했다는 사실에서 두레의 대동놀이가 지니는 풍속사적 힘의 논리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 3. 갑오농민전쟁시기의 두레

민중이 주체가 되고자 하는 변혁이념은 생산대중의 건강한 삶의 토대에서 역사동력의 원천을 획득하는 것이며 일정한 계기 속에서 폭발적 힘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다. 갑오농민전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대사회 모순관계의 폭발적 힘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겠지만, 이 경우에도 농민대중의 일상적으로 훈련되고 축적된 힘이 역사의 전면에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를 몇가지 차원에서 정리해본다.

#### 3.1. 농민동원의 원천

생산주체의 동력에 반영된 민중생활의 몇가지 문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향촌사회의 모의투쟁과 공동체연대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민란조직의 최저변 수준에서 농민군의 동력에 일상적인 여러 조직과 회의가 힘을 부여했다면 두레가 최하부 자연마을단위로 조직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향촌사회 전반의 역학관계를 벗어나서 농민생활의 위상은 자연마을단위에서 1차 자기완결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평상시에는 정치적 경제적 강제에 의하여 노출되기 어려웠던 힘의 논리가 일단 유사시에는 자연마을을 기초로 하여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자연마을단위의 힘이란 결국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진 축적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이른바 합(合)굿이란 통로를 통하여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합굿이란 전혀 다른 공간의 자연마을단위 풍물패가 함께 치는 곳을 말하거나와 풍쟁사움, 기세배 등의 사례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두레기는 그 자체 두레패의 자궁심의 상징이었으며 두레패는 두레기를 중심으로 각각의 완강한 조직성을 견지해나가면서 모의투쟁을 통하여 일상적인 연대를 지속시키고 있었다. 바로 평상시의 이러한 연대는 민란이나 외세와의 싸움에 당면해서는 신속히 각기의 깃발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거대한 지역연합을 만들어낼 토양을 축적시켜주는 것이었다. 병농일치의 당대사회에서 무장력을 지닐 수 있는 생산주체들의 조직체계가 곧바로 전투단위로 편성되는 실례는 바로 영기의 존재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풍물 조차도 곧바로, 군악으로 재편된다는 사실은 모든 풍물에 여러 진법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진법은 곧 일상적인 풍물진풀이가 군사훈련의 한 방편일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학계에서 제기된 두레와 민중동력의 원천에 관한 주장들을 몇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발표자는 조선후기 농민생활풍습에 기초를 둔 시각으로 일상적인 훈련과 단

합된 관습이 유사시에 전투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용하도 두레와 풍물에 주목하면서 이의 집강소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니와, 후대의 영학당사건에서 金錡의 동원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윤갑은 임술년 성주지방의 항쟁에서 각면에서 선출된 두민들로 구성된 향회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며, 그 때 두민들의 상당수가 마을단위로 결성되었던 두레의 행원, 즉 행수나 수총각들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인걸은 항쟁의 유형도 (1)기존의 향촌조직인 향원들이 동원하는 경우, 기존의 향회에 반발하는 층이 별도의 모임으로 항쟁을 이끄는 경우, (2) 농민 스스로가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초군, 두레) 등으로 보기도 한다. 고석규는 향회는 사회세력들의 연합조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생활공동체나 노동공동체와 같은 계급적 동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농민항쟁에서 소빈민층 동원의 주요한 조직적 기반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두레였다. 이해준은 각 마을의 계층적 이해를 같이하는 두레들은 마을 외적으로 연대성을 가지는 정도로 변화되면서 두레조직은 변혁주체세력의 동원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고 본다. 이밖에도 두레가 농민동력에 적극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일제시대 조선농민의 실상을 가장 잘 그린 탁월한 작품의 하나로 인정되는 이기영의 소설『고향』에서 그 주제가 바로 전통적인 두레가 어떻게 농민동력에 활용되고 변혁운동에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기영은 소설에서 비록 일제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과거의 두레전통이 일제식민지 농촌의 변혁에서 어떤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세히 거론하고 있다. 최근에 갑오농민전쟁과 관련하여 송기숙의 소설『늑두장군』에서도 두레는 중요한 매개조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이 예술형상화 작업에서도 조선후기 민중동력 및 갑오농민전쟁시기의 농민동력에서 두레의 역할은 단연 돋보이고 있다.

### 3.2. 몇가지 사례들

구체적인 몇가지 사례만 들기로 한다.

(사례1) 두레패가 다중의 사람을 일시에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례는 고종연간의 경봉국 역사 때, 다수의 두레패들이 동원된 사례에서도 보여진다. 부역에서 조차 두레기를 앞세우고 서울로 향하였던 것이다. 동원될 당시에 으뜸두레와 열세인 두레에서 서열이 분명하였으며 민중동원의 방식으로 두레를 지배층에서 이용하기도 했다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힘은 거꾸로 유사시에는 민란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로 뒤바뀌었을 것이다. 가령 작은 규모의 민란에서도 金錡같이 악기소리를 내면서 동원

하였던 사례를 자주 살펴볼 수 있다. 동학농민군이 집결되는 초기 단위에서도 먼저 금쟁이 쓰였을 것이고, 이러한 금쟁이 범 연대로 나아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조조에 부안지역에서 농악기를 압수하려는 논란을 통하여 두레의 민중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이는 일찌기 북한의 민속학자 전장석이 1957년에 주목한 이래, 남한학계에서 수차례 재론된 바 있다)

(사례2) 농민군이 이동할 때, 반드시 영기 따위를 들고다녔을 것이며 호적 북 같은 악기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농민군들은 악기 소리의 차이만 갖고도 자기 진영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 악기와 연회적인 요소들, 가령 길군악 같은 요소들은 바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단련된 것이었지만 유사시에는 군악대의 역할 같은 성격도 보여 주었다.

(사례3) 오지영의 동학사에서 보은집회를 거론하면서, 수만명의 사람들을 정돈하기 위해 각 포·각 접마다 기를 세워 표치를 나타내고 넓은 벌판에 죄차를 정하였는 바, 그 형식이 매우 질서가 정연하여 한번 봐도 가히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쓰여진 기는 글자 그대로 포와 접을 드러내는 표식기였을 것이나 기를 중심으로 집결하는 농민들의 심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마을에서 쓰이던 두레의 영기 따위가 반드시 동원되었을 것이다. 모든 농민들은 마을을 상징하는 두레기를 보고서 일치단결하여 집결하는 훈련에 익숙하였던 것이다.

(사례4) 갑오농민군이 남도의 성읍들을 잇달아 장악할 때의 정경이다. 흡사 풍물패 길군악을 보는 듯한 인상마저주는 농민군 행진 기록을 『오하기문』에서 그대로 인용해본다. 풍물패의 역동성이나 농악기들, 또 하나의 잡색놀이를 연상케하는 칼춤, 진풀이 등의 모습을 찾아냄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정이 나이 열너댓 살된 아이를 업고 대열 맨 앞에 섰는데 그 아이는 손에 남색의 홀기(笏旗)를 쥐고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 뒤에 농민군 장정들이 따랐다. 호적을 부는 자가 앞을 서고 다음에 인(仁)·의(義)를 쓴 기 한 쌍, 다음에 예(禮)·지(智)를 쓴 기 한 쌍, 그 다음에 백기 두 쌍이 따랐는데 하나는 보제(普濟)라 썼고 다른 하나는 안민창덕(安民昌德)이라 썼다. 그 다음에는 황기가 따랐는데 보제중생(普濟衆生)이라 썼고, 나머지 기들은 각각 읍명을 표시했다. 그 다음에는 갑주(甲冑)를 쓰고 말을 타고 칼춤을 추는 자가 하나 따르고, 다음에는 칼을 쥐고 걸어가는 자 4~5쌍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붉은 단령(團纓)을 입고 나팔을 부는 두 사람, 호적을 부는 두 사람이 따랐다. 또 그 다음에는 한사람이 절풍모(折風帽)를 쓰고 우산을 들고 도복을 입고 나귀를 타고 따랐는데 이 사람 주위에는 여섯사람이 좁은 옷에 같은 모습을 하고 뒤따르고 있었다. 두 줄로 늘어선 만여의 총수는 머리에 수건을 동여맺는

데 수건은 다섯 가지 색깔로 표시했다. 총수 뒤에는 죽창을 든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보무가 꺾어지고 돌아서는 것이 혹 갈지(之), 혹 입구(口)자를 만들어 진세를 배열하였다. 이들은 모두 맨 앞의 남기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았다.

#### 4. 몇가지 과제

두레가 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학계의 일정한 합의는 일정한 수준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레가 변혁운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론적 틀로서만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발굴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민의 생활을 제대로 기록한 문헌자료가 부족한 형편인데, 생활과 풍습에 대한 현지연구조사로 일정한 공백이 메꾸어질 전망을 잃어내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아직 조선후기민중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며, 단지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두레를 역사민속학적방법론으로 연구하고 자료채집을 1차 마무리해나가는 수준에 와있다. 이후 기회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조사된 두레관련 자료를 근거로하여(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국두레조사보고서 출간예정) 농민동력에 관한 일정한 체계있는 보고를 학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 韓國 民間信仰이 東學革命에 미친 影響

김홍철 (圓光大 東洋宗敎學科 敎授)

## 1. 序 言

東學農民革命은 水雲 崔濟愚에 의해 창립된 東學이라는 종교에 그 이념적 바탕을 두고 있다. 한 종교가 창립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시대 그 상황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면서 그 응답의 방법 역시 당시의 민중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바램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수운은 오랜 구도생활 끝에 1860년 上帝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吾有靈符하니 其名仙藥이요 其形太極이요 又形 弓弓』이라는 말 이었다. 이 한마디 간단한 표현 속에 당시 민중 속에 편만된 욕구, 민중이 추구하는 경향성, 동학이 지향했던 운동의 방향 그리고 동학의 근본 사상성향 까지가 모두 포함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혁명은 바로 이 동학의 기본 성향과 맥을 같이하면서 넘쳐 들어오는 외세, 부패한 지도층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고, 실추된 인권을 회복코자 했던 민중의 몸부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동학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민중속에 편만된 呪符 神人 秘記 豫言과 같은 민중신앙적 요소들이 구체화되어 제시되면서 민중을 응집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본 발표는 당시의 우리 민간신앙이 동학농민전쟁에서 어떻게 작용되었으며 그것들이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 2. 東學革命 당시 民間信仰의 傾向

우리민족은 역사가 오래인 만큼 실로 다양한 형태의 습속과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

러나 그 습속과 전통이 시대 여건에 따라 그때마다 색깔과 방향을 달리하면서 어느 일면이 강조되는 성향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한말 동학창립과 동학혁명을 전후하여 크게 두드러진 몇 가지 민간신앙 습속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가 현실 부정과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갈구이다.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현실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했던 이 경향성은 조선조 중말엽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구체화되어 각종 豫言秘書 神人 仙人出現 千年王國建設 같은 신앙이 민중속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게 되고, 하루빨리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이 뒤바뀌어 새로운 낙원의 세상이 돌아오기를 갈구하는 상황이었다.

또 하나가 오랜 민간신앙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던 巫俗信仰의 유행이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의 지도자들은 고답적 性理學을 발전시키면서 민중의 종교적 욕구를 외면했던 관계로 천시되던 무속 신앙이 민중신앙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전통적 다양한 습속들이 민간신앙화 되는 경향성을 띄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符籙信仰 같은 것이다. 물론 부적이 도교 불교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부적신앙은 占 風水圖讖 등과 더불어 당시 민중신앙의 주류가 되면서 인간의 질병·부귀·행·불행 등 모든 운명을 해결해 주는 비방으로 신앙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경향은 특히 전라도 지방에서 치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黃玟은 당시 호남지방의 민간신앙 성향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 사람들이 재주와 지혜가 많고 깨닫기를 잘하며, 方術과 圖讖의 학문을 좋아했으니 丹家の 權克中 醫家の 柳尙菴 輿家の 李義新 朴尙義는 근고에 있어서 모두 뚜렷이 상고할 수가 있다. 그 밖의 卦命 風鑑 星曆 射覆 奇乙 壬遁의 글이 집집이 비축되어 있고 입으로 전하여 잡담을 하여 수십년 이래로 모든 서울의 權貴의 집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相學을 이야기하고 命數를 이야기하는 자는 호남 사람이 10중의 7,8명은 된다.」(『東學亂』)

### 3. 民間信仰이 東學革命軍에 미친 影響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일단을 朴殷植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秘記가 전해 오는데 『鄭鑑錄』은 바로 앞일을 예

언하는데 大宗이며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것이다.그 내용에 이씨조선은 국운이 5백년이면 끝이 나고 眞人이 나와 이어받아 나라를 일으킨다는 구절이 있다.또한 이로움은 弓弓乙乙에 있다 하였으니 동학은 그 義를 취하여 詞를 꾸몄으며 13세의 武神이 강림한다고 하였다.또한 弓乙으로써 노래를 삼았고 弓乙으로써 旗를 삼았다.또한 동학에 들어오는 자는 三災 八難을 면할 수 있으며 병을 들은 자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부적을 살라 마시면 곧 쾌유된다고 하였다.또한 말하기를 창혈에서 물을 빼어 그 부적을 품으면 탄환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현혹되었다.이 가운데서 진인이 나와서 창생을 널리 구제한다고도 하였으니 미신의 성함은 대중에 퍼져 있었다.」(『韓國痛史』)

당시의 민중 속에 흐르는 정서를 잘 지적했다고 보여진다.그러면 당시 어떠한 민간신앙이 동학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몇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 1) 새 세상의 到來에 대한 確信

당시 민중 속에 편만된 종말사상과 메시아 출현에 대한 갈구는 수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면서 後天開闢思想으로 표현되고 있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천개벽이란 낡은 구시대의 종말과 새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낡은 질서, 규범, 정권의 주체, 권력과 부를 누리던 세력은 종말을 고하고 이제 새로운 질서 가치 규범이 바탕이 되는 개벽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동학혁명을 일으킨 주류세력의 기본 이념과 바탕이 되었고 혁명에 가담한 민중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굳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동학도를 비롯한 민중들 속에 편만되어 있던 분위기를 吳知詠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혹자는 말하되 동학은 仙道와 근사하여 長生不死 하는 법이 있고, 하늘에 날라서 올라가는 조화가 많다 하며, 혹자는 말하되 조선에서 처음난 도라 하며, 장차 천하가 모두 이 도에 돌아온다고 하며, 동학군의 말을 들으면 천지는 새로 개벽이 된다 하며, 동학의 도는 이제도 듣지 못한 것이요 옛날에도 듣지 못한 것이요,지금도 비유될 수 없고 옛날도 비유될 수 없는 법이라 하며, 동학군은 단결이 잘 되었고,韓信 諸葛亮같은 영웅 호걸이 많다는 등, 장래의 세상은 동학군의 세상이 된다는 등, 일반의 인심은 모두 동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東學史』)

이같은 새시대의 도래에 대한 확신은 농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전장으로 뛰어 들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면서 죽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2)符籙과 呪文의 靈驗에 대한 믿음

『東經大全』포덕문에 「이 부적을 받아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며 내 주문을 받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게 하라. 그러면 너도 오래 살아 천하에 덕을 펼 수 있으리라.」했다.초기에 동학 신도들이 즐겨 쓰던 符는 弓乙符였고,외우던 呪文은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는 21자 주문이었다.이 부적과 주문은 질병을 치료하는 仙藥이었고 불행을 가져오는 마귀를 축출하는 呪力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동경대전』降魔詩에 「3·7자 주문을 그려 와 세상마귀를 내쳐버렸다.」하였고,『日省錄』崔濟愚 공안에는 「병이 있는 자는 풍병·학질을 막론하고 암송을 권하면 즉시 차도가 있었다.」하였다. 여하튼 초기 동학에서 발견되는 궁을부나 三七字 呪文은 長生 降魔 療病 禦寇 降靈 등 「메디컬 파워」를 붙였는 것이다.(金庠基,『東學과 東學亂』) 이같은 주력은 수운 자신에게서도 효험으로 나타났고 또 적지않은 사람들이 이 부적이나 주문에 의해 질병을 치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적과 주문의 영험에 대한 믿음은 동학농민전쟁이 발발되면서 농민군들 사이에 급속도로 번져 나갔다. 부적을 붙이면 칼날이 들어오지 않으며,부적을 몸에 지니고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물에 들어가도 잠기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고, 비가와도 옷이 젖지 않고, 화살이나 돌이나 탄환이 모두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黃玹,『東學亂』) 「동학군들은 呪符를 믿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견강한 마력이 있었던 것이다.」(朴殷植,『韓國痛史』)

이리하여 동학 농민군은 전투시에는 모두 등과 어깨에 「靑乙」 또는 「弓乙」자를 황색 지에 써서 붙이고 수십 인씩 집단을 이루어 전면에 높은 일매의 白布旗를 펴세우고 모두 주문(三七呪)을 소리 높이 외치며 합성을 지르면서 탄환이 비오듯하는 陣中을 돌진해 갔다.(崔玄植,『甲午東學革命史』)

진법은 3355로서 하늘의 별 모양을 본뜨고 깃발에는 청 홍 흑 백 황의 5가지 색깔을 쓰고 전봉준은 흰 갓에 흰옷을 입고 손에는 105개의 구슬이 달린 염주를 가지고 입으로는 3·7聖呪를 외우면서 대포병에게는 어깨에 궁을의 두 글자를 써 붙이게 하였고 등에는 「同心義盟」 녀자를 써 붙이고 깃발 바탕에는 「5만년의 운을 받은 큰 뜻으로 옛것을 고쳐 면목을 새롭게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 붙이기도 하였다.(金庠基,『東學과 東學亂』)

또 전투진세를 펴는데도 弓乙의 형상을 만들고, 이름을 쓰는데도 활을 편 모양을 하고, 혹은 활을 늦춘 모양을 하기도 하고, 혹은 바로 활시위의 모양을 하고 밑에 乙字를 새겨서 궁을의 讖書에 맞추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全奉準이 함평에 있을 때 대를 베어다 장대를 만들게 했는데 장성 月坪 전투 때는 군중에 령을 내려 靑乙字를 써서 등에 붙일 것이며, 수건으로는 머리를 싸매고 입은 앞옷 깃을 물고 엎드려서 장대를 굴러 나가되 옆을 돌아보지 말 것이니 이렇게 하면 적군의 포탄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하여 진군하니 관군이 패주했다.(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日省錄』에는 주문을 외우고 칼춤을 추어 적을 막는다.」는 기록도 보인다.

1894년 7월 20일 고부에서 咸平執綱所에 보낸 편지봉투 속에는 「八都在此符」라는 靈符가 그려져 있는데 그 뒷면에 「이것을 몸에 지니면 활과 돌에 맞지 않는다.鏡明朱砂로 그리라.」고 쓰여 있다.(靑·풀생활사박물관편, 『동학농민전쟁민속전』)

### 3) 秘書入手로 인한 자신감의 高揚

동학농민군의 결속과 사기양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秘書入手에 대한 소문 이었다.전라도 무장현 선운사 도솔암 남쪽 수심보존 되는 곳에 50여길이나 되는 층암절벽이 있고 그 절벽위의 앞면에는 큰 불상하나가 조각되어 있었다.전설에 의하면 그 석불은 지금부터 3천년전 黔堂禪師(선운사를 창건했다는 전설의 명승)의 眞像이라고 하며 그 석불의 배꼽속에는 신기한 비결이 들어있다고 하며 그 비결이 나오는 날은 한양이 멸망한다는 말이 자자하였다.

그 증거로는 전라감사 李書九가 부임한 후 望氣(서기가 어림을 봄)를 하고 선운사에 내려가 석불의 배꼽을 떼고 그 비결을 꺼내어 보려 하는데 그때 마침 뇌성벽력이 일어나므로 그 비결책을 다 못보고 도로 봉해 두었다.그런데 그 비결의 첫머리에 쓰여있기를 「전라감사이서구 開坼」이라고 한 글만 보고 말았으며 그 뒤로도 사람들이 열어보려 하였으나 벽력이 무서워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날 孫華中 接中에서는 그 비결 이야기가 나오고 좌중에 吳河泳이라는 도인이 있었다. 그는 그 비결을 꺼내도록 하자고 좌중을 설득했다.그같은 중요한 비서를 봉해 둘 때는 반드시 霹靂殺을 넣어 후인이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그러나 이서구가 열 때 이미 벽력살은 없어졌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것을 꺼내기로 작정했다.

그리하여 靑竹 수백개와 새끼 수십둘레를 구하여 浮械를 만들어 그 석불의 전면에 안치하고 석불의 배꼽을 도끼로 부수고는 그 속에 들어 있던 비서를 꺼내었다.(吳知泳, 『東學史』)

이렇게 꺼낸 비서가 孫華仲 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무장 고창 영광 장성 흥덕 고부 부안 정읍 등지의 사람들이 吏民을 가리지 않고 수만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서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양은 멸망하게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실지로 동학 지도층 중에는 이 秘書 뿐 아니고 『鄭鑑錄』이라든가 당시에 유행하던 秘記 秘書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 자체가 「弓乙之道」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해 준다.(韓祐旸, 『東學과 農民蜂起』)

#### 4) 神人으로 浮上된 東學 指導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3인의 지도층 인물이 全瑋準 孫華仲 金開南 이다. 그런데 이들 3인은 모두 인간 이상의 신비성을 지닌 인물로 당시 농민군들 사이에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동학혁명의 최고 지도자였던 全瑋準은 天人이요, 神人이요, 異人으로서 장생불사하고 신출귀몰하는 재주가 있으며 앞일을 예언하는神通력이 있다고 그를 따르던 농민군은 철석같이 믿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세상에는 流言이 백출하여 별별 기괴한 말이 많이 퍼져 돌아다녔다. 전봉준 대장은 참 영웅이니, 異人이니, 신출귀몰의 재주가 있고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는 묘술이 많으며, 천하에 장사요 세상에 없는 영웅이라 총검을 맞아도 죽지 않고 총구멍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떠들며 조화가 비상하다고 萬口로 전파되어 지껄이는 소리는 전조선이 흔들흔들하였다.」고 吳知泳은 적고 있다.(『東學史』)

「전봉준은 더욱 준결하고 피가 있어 일할 수 있는 인물이다. 누차 관군을 가르치게 하여 패배시켰으며, 오로지 미신으로써 그의 무리들을 복종시켰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피하지 않는 용맹이 있어 회피하는 바 없었다. 일찌기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나는 神符가 있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비록 砲煙彈雨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부상하는 일이 없다. 너희들은 이것을 봐라 하고 이어 소매 속에 탄환 수십 알을 몰래 감추고 비밀히 잘 아는 사람 10여명에게 포위케하고 모두 발사하되 공포를 쏘게 했다. 전봉준은 포위한 가운데서 뛰어나오며 소매를 흔드니 탄환이紛紛히 땅에 떨어졌다.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

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말하되 장군은 사람이 아니고 神人이다 하였다.이에 그 무리들은 그 부적을 차고 총탄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한다.」(朴殷植, 『韓國痛史』)

민중을 응집하는 방편으로 전봉준은 이런 계책을 썼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하튼 당시 동학군의 눈에 그는 神人으로 보였음이 분명하다.

孫華仲은 일찌기 十勝地를 찾아 지리산 靑鶴洞에 들어가 수도하다가 동학에 입문하고 전라도에 돌아와 접주가 되었다.그의 뛰어난 인품과 역량 때문에 당시 전라도에서는 손화중포의 명성을 따를 동학접주가 없었다.처음 그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동학혁명에 가담하기를 꺼려하였으나 전봉준의 간청에 응하여 일단 기포하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고 민중을 응집하는데 견인차역을 담당했다.상기한 비서 입수의 소문이 더욱 그를 신뢰하도록 했던 것 같다.

「이때 고창 무장을 비롯하여 이웃 고을에서도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예기발랄한 동학접주 손화중의 명성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그것은 무장선운사 도술암 암벽의 불상에 비장되어 있는 세칭 黔丹大師의 비결록을 꺼내 갔다는데서 더욱 신비의 인물로 여겨졌다.」(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金開南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호탕한 武將이었다.남원을 중심한 우도 동학세력 형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는데 그 역시 신비적인 일화가 얽혀 있다.「金箕範은 스스로 꿈속에서 神人이 나타나 손바닥에 開南 두 글자를 써 주었다고 말하고 드디어 자신을 開南이라 하였다.」(黃玹, 『梅泉野錄』) 神人の 예시에 의해 받은 그의 이름은 글자 그대로 남쪽을 열어 평정한다는 암시가 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동학군들이 神人을 이용했다는 근거는 여러 전적에 보인다.동학군들은 키가 작고 지혜 있는 14,5세 가량의 소년을 진중에 두고 이를 神童 神人이라 하면서 작전 구상이나 전투시에 진중을 지휘하는 방법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적은 함평군에서 陣을 벌이고 세력을 자랑하고 야단을 피운다.이때 평민이 앞서고 나이 14,5세 가량의 아이 한사람이 軍前에 나오는데 아이가 남색으로 된 笏旗를 가지고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시늉을 하면 모든 적들이 거기에 따라간다.」(黃玹, 『東學亂』)

이 외에도 동학혁명에 영향을 준 민간신앙적 요소는 많이 보이나 본 발표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4. 結 言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 발발 당시의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경향과 그것들이 실지 전투 과정에서 민중을 응집하는데 어떤 역할과 작용을 했던가를 고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동학혁명을 다루면서 농민들의 응집과 목숨을 건 전투, 호남 일대를 석권한 전과 등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지적해 왔다.예컨대 외세에 대한 반발, 탐관오리의 부패에 대한 항거, 민주시민의식의 태동, 고차원의 애국애족심 등 다양한 원인을 지적한다.물론 이런 원인들이 작용되었던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응집되고 그것이 대규모 혁명으로 이끌어진 주된 원인은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이념들만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물론 소수 지도급들의 동학이념을 주축으로 하는 지도력도 있었지만,대다수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즉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확고부동한 민중신앙이 작용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발적으로 동학에 가담되었던 농민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초기의 많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이제 더 이상 관리들의 횡포에 참을 수 없으니 한번 뒤집어버리자,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이씨조선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며, 그때는 우리도 잘살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그리고 또 초기 전투에서 지도자들이 보여 주었던 초능력적이고 신비적인 呪術的 方편들이 적효했던 것으로도 보여진다.

# 이야기와 東學農民革命

박맹수 (圓佛敎 靈山大學 敎授)

## 1. 이야기의 가치와 중요성

前近代사회의 대다수 민중들은 자신들의 꿈과 소망,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회적 치위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全州 근교에는 전통 韓紙를 만드는 工人들이 다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산한 한지는 모두 貢物이라는 이름으로 조정의 여러 기관에 상납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지 생산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없었다. 전근대 사회 민중들은 또한 자기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만한 초보적 문자교육 정도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전근대사회에서 자유롭게 기록을 남기고 문자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양반이나 귀족층에 국한되었고, 대다수 민중들은 문자로부터, 기록으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기록하고 표현할 만한 사회적 치위나 수단을 가지지 못했다 하여 기록하고 표현할 만한 생각이나 감정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소수의 양반 지배층의 전유물이던 붓이나 먹 베투와 한지가 없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자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자신들의 삶의 역사를 담은 문헌자료들을 남길 수는 없었을 지라도 전근대사회 민중들은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승시켜 왔다. 즉 전근대사회 민중들은 엄격한 身分制度에 의해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

1) 이러한 대다수 민중들의 처지는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그 처지가 개선되고 있었으나, 1920년대 우리나라의 문맹율이 80%를 넘고 있었다는 통계를 통해서 조선시대 민중들의 대부분이 초보적인 문자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창조하였고, 그러한 표현·전승 수단을 통하여 민중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끈질기게 전승되어 왔다. 그러한 수단들이 바로 이야기<sup>2)</sup>·民謠·民俗놀이·民俗춤, 民俗劇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문자나 기록,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전근대사회 민중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이야기는 말을 통해 만들어지고 전승되기 때문에 초보적인 문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또한 특별한 구속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민중들의 처지에 비추어 가치있고 재미있는 내용은 더하기도 하고, 가치없고 재미없는 내용은 빼기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서 민중적 생각과 감정, 꿈과 소망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문자로 된 기록을 별로 남기고 있지 않은 전근대사회 민중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려 할 때는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들을 분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人物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事件이 일어났을 때, 또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地域(場所)와 관련되어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일단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다시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加減이 되면서 전승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민중적 입장을 대변한 人物이나 事件에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져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1860년 4월 5일 無極大道를 깨달아 東學을 창도한 水雲 崔濟愚<sup>3)</sup>의 위대성을 꼽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西世東漸과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의 심화라는 이중의 시대적 모순에 의해 시달리던 조선왕조 말기 대다수 민중들의 꿈과 소망을 집약하여 시대적 모순을 해결하는 한편, 전근대사회를 타파하고 근대 사회를 이룩할 새 사상을 東學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찾는다. 동학이 당시 민중들의 처지를 집약하여 대변하고 있는 증거들은 수운이 지은 『東經大全』과 『용담유사』에 수록된 여러 저작속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기에 최수운은 19세기 중엽 조선민중의 정치·사상적 대변자로 평가되기도 한다.<sup>4)</sup> 그러나 민중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여 그들의 생각을 집약하여 대변

2) 口傳 說話 혹은 民談이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야기로 통칭하기로 한다.

3) 이하 水雲이라 칭함.

했던 수운은 보수지배층들이 가장 두렵게 여긴 신분평등을 주창함으로써 재야유생들과 봉건지배층에 의해 강력한 탄압을 받은 나머지 마침내 1864년 3월에 처형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들의 처지를 대변하고자 했던 수운이 처형되었을 때 당시 민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점이 몹시 궁금해진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길은 바로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져 전승되어 온 이야기를 수집하여 분석해 보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1894년 東學農民革命<sup>5)</sup>은 전통시대 최후의 시기에 일어난 최대의 民族的·民衆的 항쟁이었다. 즉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가 유교적 이념을 근간으로 한 동아시아적 체제에서 과학기술과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세계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되던 시기에 의세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 조선왕조 지배체제가 가진 봉건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일대 혁명 운동이었다. 여기에는 수운이 창도한 동학사상이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즉, 19세기 후반 이른바 대내외적으로 강요되는 이중의 시대적 모순에 의해 시달리고 수탈 당하던 조선 민중들의 고통에 찬 현실을 혁파하고자 全琫準 金開南 孫化中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동학사상에서 그 혁명이념을 제공받고 동학의 조직을 동원하여 민중들의 편에 서서 反外勢·反封建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이라는 의세와 보수 지배층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농민군 지도자들은 그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다. 바로 그때 민중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 했던 동학농민혁명이 처참하게 좌절되어 갈 당시 민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었을까 하는 점 또한 몹시 궁금해진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1894년 東學農民革命과 당시 지도자들인 海月 崔時亨<sup>6)</sup>·전봉준·김개남·손화중 등과 관련되어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될 당시 민중들은 동학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좌절된 자기들의 꿈과 소망을 달래거나 再起의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으며, 잊어져버릴 지도 모를 민중 자신들의 위대한 傳記를 이야기를 통해 남겼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그 이전의 민중봉기와는 그 차원과 양상이 달랐으며, 그 실패가 가져온

- 4) 동학이 조선후기 민중들의 정치사상적 대변자역할을 하였다는 표현은 북한에서 나온 『조선통사』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우리나라에서 1894년에 일어난 민중봉기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동학농민혁명이라 칭한다.
- 6) 동학의 2대 교주이자 수운의 수제자, 이하 해월이라 칭함

충격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量的 측면에서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내용 또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가 전근대 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이행되던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근대사회말과 근대사회초에 걸치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質的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전근대와 근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건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중적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근대와 근대에 걸치는 시기에 만들어져 전승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근대사회 최대의 민족적 민중적 항쟁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동학농민혁명과 이야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동학이 창도된 1860년부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가 처형된 1864년을 전후하여 민중들 사이에 전승되던 이야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동학 창도 초기들의 이야기들은 동학이 制度宗教로 정착하는 시대에 이르러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동학 이야기들이 최초로 문자로 정착되기는 1880년 『崔先生文集道源記書』라는 동학 최초의 敎團史가 나오면서 부터이다. 이후 동학 이야기들은 1910년대에 들어와 동학의 후신 天道敎측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정리되기에 이른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1894년을 전후하여 민중들 사이에서 만들어져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1894년 당시 지방의 재야 유생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나마 사건전개과정을 충실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들 기록 가운데에는 ‘파랑새노래’라든지, 고창 禪雲寺 ‘石佛秘訣’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유생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수많은 이야기들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계 機關誌들에 의해서이다. 즉 1910년에 창간된 『天道敎會

7) 황현의 『오하기문』, 이병수의 『금성정의록』 참조

8) 황현의 『오하기문』, 김재홍의 『영상일기』 참조

月報』와 1926년에 창간된 『新人間』 등에는 갑오년부터 그 때까지 전승되어오던 상당수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천도교회월보』에 채록된 이야기로는

「갑오년 이약이(權秉惠, 1932년 9월호~1933년 3월호)」,

「교사이문 갑오년 동학이야기(金在桂, 1934년 8월호) 등이 대표적이고

『신인간』에 채록된 이야기로는

「東亂雜話(車相瓚, 1926년 4~5월호)」,

「東學史話(趙基간, 1933년 8월호~1934년 2월호)」,

「동학사화(金秉濟, 1934년 4~5월호)」가 대표적이며

그외 『別乾坤』지의

「신출귀몰 동학란중의 비화(차상찬, 1928년 8월호)」

등은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관계 이야기들이라 할 만하다. 이들 이야기중에는 충청도 신계원전투에서 활약했다고 알려진 소년장수 이야기,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내려온 관군의 대포구멍에서 물이 나오게 만든 노파이야기, 충청도 洪州의 노비들이 양반들의 불알을 깬 이야기, 역시 충청도 禮山군수가 도망가면서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간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이외에도 전봉준의 체포와 관련하여 '敬天'을 조심하라는 점괘 이야기, 전봉준이 몰래 가슴에 철판을 부착한 다음 부하들로 하여금 총을 쏘게 하고는 탄알 껍질을 툭툭 털면서 아무렇지도 아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농민군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이야기, 장성 황룡촌전투의 승리와 관련된 장태장군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채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이야기의 형태로 채록되어 실려 있지만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단순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귀중한 내용들이 많다. 즉 동학농민혁명 관련 이야기들은 민중의식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史料的 가치마저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채록한 자료로는 1940년에 간행된 吳知泳의 『東學史』를 꼽지 아니할 수 없다. 전라도 익산 출신의 오지영은 1894년 당시의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로서 『동학사』를 쓰면서 자신이 채록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이야기들을 『동학사』 서술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야기들을 많이 수록하였기 때문에 책의 제목 앞에 '역사소설'이라는 말을 썼는 지도 모른다. 아 물론 『동학사』는 그 당시까지 알려진 동학 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계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수록함으로써 그야말로 동학농민혁명

에 대한 이야기의 寶庫로 손꼽히고 있다.

아주 최근에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사 연구한 趙東一 교수는 그 성과를 『동학성립과 이야기(홍성사, 1981)』로 간행한 바 있다. 『동학성립과 이야기』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와 관련된 이야기의 형성·전승·분화과정을 동학·천도교계 각종 史書들과 최제우의 탄생지 慶州 龍潭 현지에서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를 수집하여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이야기가 갖는 역사적 기능에 대하여 명확한 논증을 보여 주었다. 조교수의 동학이야기 분석에 의하면, 최제우는 결코 단순한 종교적 수련만을 강조했던 인물이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변혁 운동을 시도했던 혁명적 인물로 확인된다고 한다. 따라서 조교수의 연구는 동학관련 ‘이야기’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하여 동학사상에 대한 재해석과 동학농민혁명 연구 방법론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 준 귀중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동학성립과 이야기』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연구자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이야기는 물론 이야기 그 자체로 본다면 허황된 것이다. 그러나 허황된 이야기가 허황되지 않는 뜻을 지니고 있다. 허황되지 않는 뜻을 찾아낸다면, 이야기는 역사나 사상에 관한 문헌 이상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야기를 허황된 것으로만 다루면서 역사적 경험은 이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다 한다면, 이야기는 물론 역사마저도 바로 이해될 수 없다.”

### 3. 남은 과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들 시작하노라면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동학농민군 자신들, 즉 당시 혁명의 대열에 떨쳐나섰던 민중 자신들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록은 아니지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까지도 당시의 격전의 현장을 둘러싸고 끈질기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현장에 살아 있는 이야기들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진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때 그 시절의 소망이 담긴 채 ‘남아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채록하는 과업을 눈앞에 남겨두고 있다. 1910~20년대 우리의 선배들이 채록한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가 귀중한 갑오년 民衆傳記를 읽을 수 있는 다행함을 누리듯이 백주년을 맞는 우리가 이제 뒷세대를 위하여 남아 있는 이야기를 채록하러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전에.

끝으로 필자가 조사한 「동학농민혁명관련 이야기 및 연구논저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하면서 맺음하기로 하였다.

## <부록: 동학농민혁명 관련 이야기 및 연구논저목록>

- 權秉憲(淸庵), 「갑오년 이야기」, 『천도교회월보』259, 1932.9  
 「갑오년 이야기」, 『천도교회월보』260, 1932.10  
 「갑오년 이야기」, 『천도교회월보』261, 1932.11  
 「갑오년 이야기」, 『천도교회월보』262, 1933.1  
 「갑오년 이야기」, 『천도교회월보』264, 1933.3  
 「갑오동학란과 전봉준의 이야기」, 『천도교회월보』267, 1933.7  
 「계사년복합과 보은장내대회」, 『천도교회월보』268, 1934.1  
 「해월신사와 이적」, 『천도교회월보』270, 1934.6  
 「의암성사의 일화」, 『천도교회월보』276, 1935.5
- 金秉濟(秋尙), 「동학사화」, 『신인간』78~79, 1934.4~5
- 金秉禧, 「三月十日 싸고 도는 傳說 몇가지」, 『신인간』77, 1934.3
- 金在桂(聲庵), 「교사이문 갑오년동학이야기」, 『천도교회월보』271, 1934.8
- 羅龍煥(봉庵), 「엄청난 작란」, 『천도교회월보』242, 1931.2  
 「秘密을 天下同德에게 公開합니다」, 『천도교회월보』253, 1932.1
- 무극자, 「동학때의 異蹟」, 『천도교회월보』271~272, 1934.8·10
- 朴達成,(春坡, 茄子峰人), 「우리는 종놈이다-東學亂중의 興味있는 事實-」, 『개벽』65, 1926.1  
 「回顧 敎會生活 二十有八年」, 『신인간』12, 1927.5  
 「아버지 따라 첫 開會 구경 -甲辰九月 이야기」, 『신인간』27, 1928.9  
 「東學亂實話」, 『신인간』34, 1929.4
- 趙基간(一然), 「東學史話-능주목사에게 옥퍼부는 원인으로 죽다가 살아난 얘기접주」, 『신인간』70, 1933.8

「東學史話-고요한 깊은 밤이면 춤을 추고야 견디는 한 다리가 긴 독신자」, 『신인간』71, 1933.9)

「東學史話-後天 人皇氏 發見한 이가 누구런고」, 『신인간』74, 1933.12)

「東學史話-동학쟁이란 혐의로 두번씩 도적놈으로 몰리워」, 『신인간』76, 1934.2)

曹山江, 「越訴(동학사화)」, 『신인간』59, 1932.9)

「越訴(동학사화)」, 『신인간』61, 1932.11)

「越訴(동학사화)」, 『신인간』62, 1932.12)

「越訴(동학사화)」, 『신인간』63, 1933.1)

「越訴(동학사화)」, 『신인간』64, 1933.2)

車相瓚(靑吾), 「東亂雜話」, 『신인간』1~2, 1926.4~5)

「神出鬼沒 東學亂中の 秘話」, 『別乾坤』15, 1928.8)

「韓末改革黨 東學亂雜記」, 『新東亞』9, 1932.7)

洪鍾植口演·朴達成記, 「東學亂 實話」, 『신인간』34, 1929.4)

### 『논문』

송기숙, 「한국설화에 나타난 민중혁명사상-선운사 미륵비결설화와 동학농민전쟁의 민중적 전개-」, 『우리 시대 민족운동의 과제』, 한길사, 1986)

「장흥지역 동학농민전쟁 관계 구전조사」, 『역사와 현장』1,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 1990)

조동일, 「최계우와 구전설화」, 『인간과 경험』2,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1990)

### 『단행본』

조동일, 『동학성립과 이야기』, (홍성사, 1981)

# 古阜蜂起와 堂山祭

송화섭 (圓光大 國史教育科 講士)

## 1. 머리말

19세기 중엽에 사회변혁 운동으로서 농민항쟁은 전국 각처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고부봉기 역시 일종의 민란이었으나 개혁을 내걸고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에서 다른 민란과 변별성을 가지고 있다. 고부봉기는 조병갑의 탐학과 수탈, 분노에 찬 농민들의 응징, 응징세력을 선도한 전봉준과의 삼각관계가 역사적인 사회변혁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를 가져왔지만,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와 신분제 와해로 인한 민란과 사회모순과 제도폐해에 따른 민심동요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지금까지 갑오농민혁명<sup>1)</sup>의 연구는 인물중심과 지역적 편협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건전개를 동학지도자와 조직, 전쟁양상, 수탈 및 학정의 대응관계, 지역적 전개, 기구와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어 온 결과라고 본다. 갑오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가 왜 하필 전라도중심으로 확산하였으며 그 가운데 고부가 진원지가 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즉 농민항쟁으로 출발한 고부봉기는 동학조직과 손잡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를 규명함으로써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물 중심을 탈피하여 19세기말에 고부지역에서 성행한 당산제를 통해서 갑오농민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고부봉기와 당산제의 관련성은 전봉준이 고부봉기 전날밤에 예동마을을 찾아간 사실에서 유추해낼 수 있다. 고부봉기가 발발한 시기는 당산제 기간에 속하는 1월 10일경이며, 전봉준은 봉기의 주도세력으로 예동과 인근 마을의 농민들을 동원하려는 치밀한 계

1)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갑오년의 민중운동의 명칭이 동학농민전쟁, 동학난, 갑오농민전쟁, 동학혁명, 동학농민혁명,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농민항쟁이란 측면에서 갑오농민혁명, 동학조직과 관련해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명칭하고자 한다.

획을 전략차원에서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당산제는 전라도의 마을굿으로, 조선후기 민중생활사 가운데 촌계, 두레와 더불어 마을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공동체적 신앙의례이다. 당산제는 역사적 사회변천에 따라 분화하면서 각 마을 단위로 확산되어 갔으며, 그것은 사회적변기에 안정적 삶터 확보와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필연적 수단이었다. 그래서 조선후기이후 줄곧 고부군(정읍·고창일부) 일대에서 전승해 온 당산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핀 다음 고부봉기에서 당산제의 역할과 더 나아가 갑오농민혁명의 토양으로서 당산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려 한다.

## 2. 전라 우도지역의 마을굿<sup>2)</sup>

조선전기인 태종 13년(1413)에 八道制가 실시되면서 전라도는 좌도·우도로 구분되었다. 좌도·우도는 구분은 고종 32년(1895)에 전라남북도로 분리하기까지 480년간 지속되었다. 좌도·우도의 구분기준은 자연지리적 환경과 생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좌도는 한반도 내륙과 연결된 동부산악지대이며 우도는 서해안을 접한 서부평야지대이다.

전라좌도는 현재 전남권인 담양, 곡성, 순천, 보성, 옥과, 구례, 화순, 광양과 전북권인 남원,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운봉지역이 속했으며, 우도지역은 전남권에서 나주, 영광, 함평, 진도, 장성, 진도, 강진, 해남과 제주일부, 전북권에서는 전주, 익산, 고부, 임피, 만경, 금구, 정읍, 흥덕, 태인, 고창, 무장, 부안, 옥구, 용안 등이 속하였다.

여기에서 전라 우도지역의 마을굿을 한정하여 살피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우도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과 일치하는게 주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즉 우도지역 마을굿이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려 한다.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左道·右道는 지리적 환경요인으로 생업활동과 생활양식, 습속과 관행 등 서로 다른 文化傳統圈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구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 두 문화권역으로 나누어져, 주민들의 생업활동에 따른 민속문화와 주민들의 인성을 특질화하여 독특한 문화적 기반을 형성시켜 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화권역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업활동과정에서 표출되는 의례적 행위가 축적된 사회관습과 전통이 지역적 특성과 제 현상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마을굿은 광의적인 개념으로 '祭'와 '굿'의 양면성을 가진 용어로 본다.

좌도문화와 우도문화의 특성을 구분하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풍물굿이다.그러한 지역적 특성은 마을곳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마을곳은 좌도와 우도 모두가 마을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주고 풍농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거행하는 공동제사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그러나 명칭,신체 및 신당구조와 형태,의례절차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명칭에서 우도지역은 당산제,천룡제라 하며,좌도지역은 산신제,탑제라 한다.우도지역에서는 立石및 堂山樹와 天龍堂이 수호신체와 제당인 반면 좌도에서는 造塔과 山祭堂이 수호신체와 제당구조를 갖추고 있다.

두 지역을 문화권으로 설정한다면, 좌도지역은 산악과 전답을 자원으로 생업과 생활양식이 축적되면서 左道文化圈의 생활전통이 형성되어 갔으며, 우도지역은 평야지대와 하천유역에서 도작농경의 생활양식이 右道文化圈을 형성시켰던 것이다.문화권은 자연환경과 생업의례를 통해서 축적된 물질적,정신적 능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김택규가 분류한 秋夕文化圈은 전라우도문화권과 관련하여 새겨볼 만하다.

우도지역 당산제의 제의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제의기간은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사이에 일정한 날을 선택하여 거행된다. 대체로 제의방식은 마을의 규모에 따라 걸립굿(지신밟기)이 먼저 진행되고 난 후 정월 14일 자정을 기해 秘儀와 15일 줄다리기가까지 이어지는게 일반적이다.祭日의 시기선택은 제액초복의 再生儀禮로서 新年祭儀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신체와 신성공간의 구조이다. 마을의 신성구도는 풍수지리의 자연적 충분조건이 미흡하여 입석과 신목으로 신성공간을 조성하는 양택풍수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장치는 마을 입구에 자연입석이나 조형입석(남근석,장승,숫대)을 수구맥이와 엽승물의 기능으로 세워놓은 경우가 많다.이러한 조형물들은 수호신체로서 제의기간에 신성시된다.

셋째,심리적 주민통합과 농경의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줄다리기이다.외줄은 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農耕信仰으로서 龍信仰이 풍미하였음을 보여주며,쌍줄은 암줄과 숫줄로 구분하여 남녀의 模倣呪術的 性的結合의 상징을 보여준다. 마을의 주민들이 남(숫줄),여(암줄)로 나누어 잡고 줄을 당기는 줄다리기는 농경의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요소가 강한 娛神의인 集團遊戲이다.줄은 집집마다 벗짚을 공동 염출하여 제작하며, 남녀가 편싸움 형식으로 겨루기를 하는데 여자가 이겨야 풍년든다고 한다. 여자편이 승리를 한 후에는 입석이나 당산수에 줄을 감는 -당산님 옷입힌다-의식을 거행하는 절차가 있다.이

러한 당산제의 형태에서 도작농경의 제의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우도지역의 마을굿을 편의상 세 유형으로 분류하면 ①秘儀型, ②굿놀이型, ③秘儀·굿놀이 複合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의형은 유교식 제의절차를 강조하는 제의형태로서 금기가 엄하고 여성이 배제된 채 남성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마을굿이다. 굿놀이형은 단순히 줄다리기만으로 제의를 거행하는 것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줄굿놀이 형태를 띠고 있다. 비의·굿놀이 복합형은 정월 14일밤에는 儒禮式 절차에 의한 경건한 제의를 지낸 후에 15일에 줄다리기를 행하는 마을굿 형태를 말한다.

秘儀型은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고 부정(喪故, 産苦)탄 자를 배제하는 성차별과 금기를 엄하게 적용하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굿놀이型은 남녀노소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신분평등과 신분해방을 보여주는 개방성을 띠고 있다. 人間과 神의 교감방식은 祭(秘儀)가 二元化되어 있는 반면 굿은 一元化되어 있는 사실이 다르다.

전라 우도지역의 마을굿은 대체로 굿놀이형과 비의·굿놀이복합형이 많다. 각 마을단위로 거행된 마을굿의 태동은 취락형성과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이며 그 역사적 시기는 17.18세기경부터 신분제동요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농민층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촌 형성과 더불어 마을굿이 정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전기부터 지속되어 온 儒敎式 洞祭가 18.19세기에 농민층의 신분상승과 새로운 마을공동체들이 형성되면서 民衆式 村祭, 즉 굿놀리로 재편되어 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사실은 신분제적 향촌사회의 질서가 붕괴되면서 당산제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비의·굿놀이형의 제의양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연중행사로서 매년 정월에 마을공동으로 거행하는 당산제는, 마을의 守護神과 農耕神에게 마을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대동제 형식이었다. 마을굿은 마을의 생명력 유지와 마을운영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은 곧 가장 소중한 삶터로서 정신적·물질적인 생활의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을공간은 신성표시(神木, 神石)로 안정적 장치를 설치해 정례적인 당산제를 거행하면서 大同世界와 平等理念을 실천하는 豊饒로운 共同體世界를 구현하였던 것이다. 곧 조선후기사회에서 堂山祭는 농민적 민중의식의 성장과 주인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본다.

### 3. 정읍·고창지역 당산제의 특징

### 1) 당산제의 제의형태

정읍·고창지역의 당산제는 거의 마을마다 당산제를 거행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마을 규모에 따라 큰곳과 작은곳의 당산제가 거행되어 온 것이다. 마을단위의 당산제들은 8.15해방, 6.25전쟁, 새마을운동 등 社會變動期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해체 소멸과정을 겪어 왔으며 우루과이라운드시대에 접어들면 그나마 전승되어 오고 있는 당산곳의 명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이들 지역에서 현존하는 당산제를 재구성하여 제의형태를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일은 정월 초사흘날부터 보름사이에 설정되는데, 걸립곳과 당곳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걸립곳은 큰마을의 경우 10여일씩 하며, 작은마을은 하루 이틀간에 걸쳐 행하고 대체로 14일과 15일에 당곳을 거행한다.

2. 당산구조는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으로 구분하는데, 위치에 따라 앞당산, 뒷당산 또는 上堂과 下堂으로 구분한다. 당산이 陰陽的 兩堂構造만이 아니라 마을에 따라서는 3당산, 5당산, 7당산, 12당산으로 구조화된 마을도 많이 있다.

3. 제관은 마을주민회의에서 제일 3~7일전에 축관, 제관, 화주를 선정하는데 제관없이 화주만 선정하는 마을도 많이 있다.

4. 秘儀의 제의절차는 대체로 진설-헌작-독축-제배-소지 순으로 진행되며, 소지는 姓氏 또는 戶主 別로 올려주며 파제후에는 주민전체가 음복을 한다.

5. 제의유형은 앞장에서 분류한 바에 따르면 굿놀이형과 비의. 굿놀이복합형의 당산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6. 당산신체는 입석과 수목으로 조성된다. 상당은 천룡당으로서 마을의 주산의 수목이나 제장(터)으로 위치하며, 하당은 마을입구에 입석과 당산목이 위치한다. 天龍堂이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가운데 당산과 수구택이로서 마을입구에 당산입석이 위치한다. 수구택이로서 당산입석외에 화제택이숫대, 장승 등이 세우기도 한다. 신체는 수목이나 자연입석이 대부분이며 마을에 따라서는 조형입석(異形石塔, 당간, 미륵, 문관석, 무관석 등)으로 세워 놓기도 한다. 특히 마을 입구의 당산입석은 '택이' 기능을 가진 신체가 많다.

전봉준이 고부봉기 전날밤 찾아간 정읍군 이평면 예동마을의 당산제를 조사한 결과, 예동마을의 당산제는 해방 이후에 끊겨 현재는 거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기초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제의기간은 정월 초사흘날부터 보름날까지 이었다. 예동은 100여호 정도로 큰 마을이었으며,걸림만 10여 일이 걸리고 14일 저녁에 天龍祭를 지내고 15일날 줄다리기를 하였다.

둘째,당산은 木堂山으로 마을에 3당산설과 7당산설이 있다.

셋째,제의유형은 秘儀.굿놀이형이다.

넷째,줄다리기의 줄은 외줄로 두께는 12첩,길이는 90여 미터 정도였다.

다섯째,예동마을의 두레풍장은 굉장히 세었으며 두레조직이 강력하였다.

당산제의 내용으로 볼 때,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던 100년 전에 예동마을은 농경신앙으로 龍信仰이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었으며, 마을의 사회적 통합과 민중의식을 엮어 낼 수 있는 당산제의 성행과 노동력동원체제가 강력하게 존재하였을 알 수 있겠다.

## 2)당산제와 미륵신앙의 관계

전라도 지방에서는 당산제와 미륵신앙이 접합되어 마을공동체신앙으로 정착해 온 사실이 발견된다. 당산제와 교섭된 미륵신앙의 존재 양태는 당산제를“彌勒祭”라 칭하고, 당산입석이 미륵상으로 조각,조형되었거나 이형석탑및 석주 양식과 당간지주로 건립된 예가 그에 속하는 관련 사항들이다. 마을굿인 당산제를 미륵제와 동일시하고 있는 마을은 영암 학계리마을이며, 미륵이 당산입석으로 위치하는 곳은 진도 연산리,무안 발산리,장성 반안리,함평 아차동 등에서 발견된다.

당산제와 미륵신앙이 결합된 마을굿의 양상은 고창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속칭 고창읍내 오거리당산제는 ‘미륵제’라할 만큼 민중불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중앙당산을 ‘彌勒堂山’이라 부르며,상거리,중거리,하거리 당산입석 역시 석탑과 입석양식이 조합된 석조물로서 민간신앙과 접촉한 민중불교적 조형성이 짙게 배어 있다.이러한 사례는 성송 사내리,고수 신평리에서도 발견된다.성송 사내리의 자연입석위에 석관과 옥개석을 얹혀 놓은 당산입석 역시 미륵상을 꾸며 놓은 형상을 보여준다.또한 고수 신평리의 당산입석은 편편한 자연석을 당산입석위에 얹혀 놓아 마치 사내리 당산입석과 흡사함을 보여준다.

홍덕 석교리의 수구맥이입석(하바우,쫓바위)을 미륵바위라고 부르며, 고창읍내 하거리 당산입석(석탑양식) 옆에 「高敞邑內水口立石碑」비문은 미륵신앙과 마을수호신앙의 관계를 보여준다.이러한 사실은 당산입석이 미륵불로 조상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을

입구에 위치한 자연입석들도 미륵신앙적 요소를 띤 입석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마을마다 거의 상당과 하당에 당산입석과 당목이 위치하여 당산제와 미륵신앙이 결합된 마을곳이 고창지역에서도 성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정읍·고창지역에서 미륵신앙의 성행은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상이 대표적 말해 주고 있으며, 마을 미륵이 고창 공음 건동리(암미륵)와 무장 도곡리(숫미륵), 성송 무송리, 흥덕 사천리, 정읍 고부 남북리, 용흥리, 합정리 소성 봉양리, 춘수리 등에 분포하고 있는데서 미륵신앙의 성행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미륵신앙이 민간신앙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은 통일신라 이후 민중불교의 확산과 병행하여 전개되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산제와 미륵신앙이 접촉하게 된 것은 조선후기라 볼 수 있다.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미륵불, 즉 마을미륵이 조성하게 된 시기도 거의 같은 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당산제와 미륵신앙이 접합된 시기를 고창읍내 미륵당산과 중, 하거리 당산입석에 새겨진 명문 「嘉慶八年」, 「癸亥三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명문에 따르면 고창읍내에 당산입석이 조성된 연대는 순조 3년(1803)이다. 당산제와 미륵신앙의 접촉하기 시작하는 때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걸쳐 확산되어 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18, 19세기에 걸쳐 당산제를 통해서 미륵신앙이 전개되어 간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17세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배층은 새로운 사회발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능력, 무기력해지고 제도적 사회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여 사회혼란이 비등하여갔고, 신분제붕괴에 따른 농민층의 신분상승과 신분해방은 농민층의 분해를 가져왔으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농업기술의 발전은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와 농업경제력을 향상시켰다.

농민층의 분화는 자연촌락의 형성을 가져왔으며, 촌락단위의 두레 및 촌계조직의 성립은 당산제와 더불어 민중의식을 성장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 당산제의 거행은 신앙공동체를 엮어 내어 정신세계를 통일시켜 마을의 사회적 통합과 사상적 기반을 조성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18, 19세기 초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수탈이 심화되는 시기에 당산제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면서 풍요로운 세계(災禍皆消百穀大豐六畜番息萬事無憂里洞繁榮永世吉昌國泰民安)<sup>3)</sup>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륵신앙과 접합하였으며, 당산제를 통한 공동체의

3) 堂山祭 祭文一部

식의 강화는 학정과 수탈에 대응하려는 防禦的 守護信仰의 慣行으로 정착되어 갔다.

이러한 미륵신앙과 당산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서 마을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정신적 원동력이었다. 당산제의 제의구조에서 천룡제와 줄다리기가 수호신앙과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려는 농경신앙의 중심축이었으며, 민간계층에 전승해 온 龍信仰, 미르(龍)신앙이 당산제를 통하여 民衆的 彌勒信仰(彌勒下生信仰)으로 새롭게 분출한 것이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농민들에 대한 부세수탈의 강화가 농민들을 목조여 오고 지방관리들의 지방행정권 장악으로 학정과 수탈이 심화되어 가자 전국적으로 농민항쟁이 빈발하기 시작하였다. 어찌보면 당시 상황에서 농민들의 민중의식 성장과 탐학을 일삼는 지방관리들의 폭정은 민중봉기를 유발하는 필연적 귀결이었는지 모르겠다.

#### 4. 고부봉기의 동기와 배경

1893년 11월 만석보 수세문제로 조병갑에게 냈던 진정이 무위로 돌아가자 억울함보다는 분노와 원망이 조병갑에 대한 응징으로 발전하게 되고 사발통문으로 의지가 모아져 거사 계획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전임발령이 나자 사발통문에 약속한 거사 계획은 보류되고 40여 일이 지난 1894년 1월 10일경에 고부봉기가 일어났다. 고부봉기는 봉기 발발을 조병갑이 재임명을 받은 다음날(10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전봉준이 치밀한 거사 계획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병갑을 응징하기로 거사 계획을 세웠던 사발통문에 의한 봉기는 1차로 실패로 돌아갔다. 2차 봉기시에 사발통문에 서명한 20여 명 가운데 3명만이 참여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1차 봉기에 실패한 전봉준은 2차봉기의 방법으로 9일 밤에 이평면 예동마을을 찾아갈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본다. 전봉준이 예동마을을 찾아간 것은 봉기의 주도세력으로 예동과 인근 마을의 농민들을 동원하려 했음이 분명하였다.

전봉준은 예동마을이 농민봉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동마을은 지리적 여건상 만석보에서 8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들평야의 가장 전방에 연한 마을로서 100여 호 정도로 규모가 큰 마을이다. 이 마을의 생업 무대는 곧 배들평야였으며 보(湫)의 관리를 직접 도맡았다고 한다.

둘째, 예동마을 사람들은 만석보를 쌓는데 직접 동원되었으며, 이 마을과 인근 마을 농민들이 수세징수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조병갑에게 수세감면을 거부당한 예동마을 농민들이 조병갑에게 분노하고 원성이 높다는 것도 전봉준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셋째, 전봉준이 예동마을을 찾아간 이유는 蜂起에 인력동원이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예동마을은 주변 마을과 거리가 가까운 자연지리적 여건으로 농민동원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예동마을은 하송리, 마항리(석전, 요동, 요서, 금반, 국정골), 두전리(포룡동, 창전, 국경, 황선), 현동, 서산, 용전, 오정리, 팔선리 등과 인접하였다. (지도 1)

넷째, 전봉준이 예동마을을 찾아간 시기가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산제 기간에 속한다. 당산제 기간중에 걸립굿을 행하던 시기로서 밤늦게까지 마을주민들이 걸립을 하고 있었을 것이며 마을주민들이 흥에 겨우고 의기가 충천해 있었을 것이다.

전봉준은 사발통문에 의한 1차 거사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동학조직보다는 농민동원을 구상하였던 것 같다. 전봉준은 농민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민중의 정신세계, 농민의 조직력, 농민들의 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 같다.

예동의 김진섭(77세)<sup>4)</sup>談에 의하면 “전봉준이 우리 마을에 와서 회의를 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 농악을 치며 돌아다니며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 말은 전봉준이 마을주민들을 모아 놓고 거사 계획을 밝히며 봉기에 나서자고 독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걸립굿을 행하던 이웃마을들을 돌며 사람을 모으고 즉창도 만들어 새벽녘에 말목장터로 이동하였으며 이미 장터에 집결한 군중들과 합류하였다. 고부관아로 진격에 앞서 전봉준은 말목장터 운집한 농민들에게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하곤 한사람도 이탈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다.

전봉준은 봉기를 계획하면서 봉기일과 봉기장소의 선택에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조병갑의 재부임(9일)도 시기 선택의 이유가 되겠지만 군중운집이 가능한 장날(8일)에 말목장터를 봉기장소로 택하였다는 점이다. 봉기일을 검토해보면 『古阜民擾日記』의 10일설보다는 『石南歷事』<sup>5)</sup>에 의하면 8일(장날) 저녁 말목장터에 군중을 운집시키고 밤늦게 예동마을로 찾아가 농민들을 불러모아 새벽에 합류시킨후 새벽녘에 고부관아로 진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9일설일 가능성도 있다.

고부봉기는 전봉준이 치밀한 거사계획과 주도하에 발발한 농민항쟁이었다. 민중혁명의

4) 현재 예동마을 거주

5) 『遺傳 石南歷事』, 朴氏定基歷事篇

의지를 키워 온 전봉준은 동학조직보다 억울함과 분노를 안고 있는 農民(貧農, 小作農)들을 주체세력으로 등장시키는 전략으로 예동마을을 찾은 것으로 본다. 그러한 사실은 “其時古阜倅額外苛斂幾萬兩 放民心冤恨而有此舉”와 “起包時冤民東學離合 東學少 而冤民多”<sup>6)</sup>내용으로 알 수 있다. 고부봉기는 그후 안핵사로 부임한 이용태의 만행을 겪으면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진전되어 간 교두보이기도 하였다.

## 5. 당산제와 갑오농민혁명

조선후기 이중적인 수취구조로 농민층은 피폐하고 불안한 생활과 고통이 심화되어 갔다. 삼정문란이후 갈수록 貧農層은 늘어나고 탐관오리들의 농민수탈은 가중되었으며 자연 재해까지 겹쳐 농민들은 자기들의 삶과 삶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저항의 몸부림으로 민란이 빈발하였다. 민란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무질서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마을단위의 당산제는 생활안정과 풍요로운 삶터를 확보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기도 하였다.

마을단위의 당산제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민중의식을 향상시키며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지녔다. 따라서 18, 19세기에 마을단위의 공동체의식의 확보와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궁핍한 생활과 수탈에 시달린 농민들에게 현실적 당면 과제였으며, 그 극복 수단으로 당산제에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산제를 민속신앙이라는 현상보다는 조선후기 사회변동과정에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살피는 노력이 아쉽다.

고부봉기로 불을 당긴 동학농민혁명이 전라 우도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근본요인도 당산제가 거행되는 지역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그림 1). 그 이유는 미륵신앙과 접합된 당산제의 종교적 관념체계가 동학사상과 서로 교감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에 대한 호응과 농민층에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게 아닌가 한다. 고부봉기는 농민항쟁이었지만 동학도들이 주도하는 민중항쟁으로 발전해 간 것은 학정과 수탈의 관점보다 민중의식의 성장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것도 그러한 이유때문이다.

농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에 연중행사로서 당산제를 지내는게 관습화되어 있다. 당산제를 통해서 농민들은 민중적 대동세계와 堂山神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체득하는 종교적

6) 「全琿準供草」, 初招問目

의식을 거듭하였을 것이다. 즉 마을주민과 마을은 堂山祭 기간에 空時的인 小宇宙世界로 聖化되어가고 神秘的 體驗의 場이 형성된다. 당산제는 平等理念(身分平等), 풍요로운 理想世界 구현, 神人合一意識(身分解放-集團的 娛神行爲. 飲福-), 공동체적 主人意識 등 정신적 이념체계의 토양을 가졌으며 민중의식의 뿌리이기도 하였다.

동학은 조선후기 민중세계에 널리 확산된 민간신앙을 이론적 체계로 엮어 내어 민중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상과 이념으로 정립해 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학사상으로 요약되는 反階級的 平等思想, 後天開闢思想, 侍天主思想, 有無相資思想은 당산제의 종교적 본질과 근본적으로 상통하는 데가 많다.

당산제와 동학사상은 미륵신앙적 요소를 공통으로 내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산제는 전봉준에게 현실인식과 더불어 혁명적 이념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결과 동학이 당시의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사상까지 포용하는 사상적 통일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全琫準에게는 더없이 좋은 革命理念의 實踐基盤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선후기 동학농민혁명이 동학조직들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간 점은 동학사상에 매료되거나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앙적 성격과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학이 18.19세기에 민중의식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면 당산제를 비롯한 민간신앙을 이념적 모태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당산제는 민란으로 심화되던 시기에 마을의 생명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8.19세기는 민란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동학과 더불어 당산굿, 미륵신앙이 성행하였던 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농민들이 동학을 따르고 동학농민혁명이 확산된 전라도는 당산제와 미륵신앙이 성행하였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면도 있다. 그 결과 당산제와 민간신앙의 종교적 관념과 신앙체계를 동학이 수용하였으며, 유.불.도의 이념과 교단조직을 통하여 사상과 이념을 확산시켜 교세확장이 급신장하였을 것이다.

## 6. 결 론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인물과 동학조직을 중심으로 사건전개를 중시

해 온데 대하여 동학의 태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신앙적 기반이 무엇이었느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당산제는 전라도, 그 가운데 우도지역에서 성행한 관습화된 음력 정월의 농경의례로서 공동체의식의 강화와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신앙행위였다. 18.19세기 신분상승에 따른 농민층의 분해와 상품화폐경제에 따른 농업생산력 증대는 각 마을단위로 당산제(굿놀이형,비의·굿놀이형)가 성행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당산제의 역사적 의의는 17.18세기 이후 민중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민중항쟁이 확산될 때 마을의 생명력과 공동체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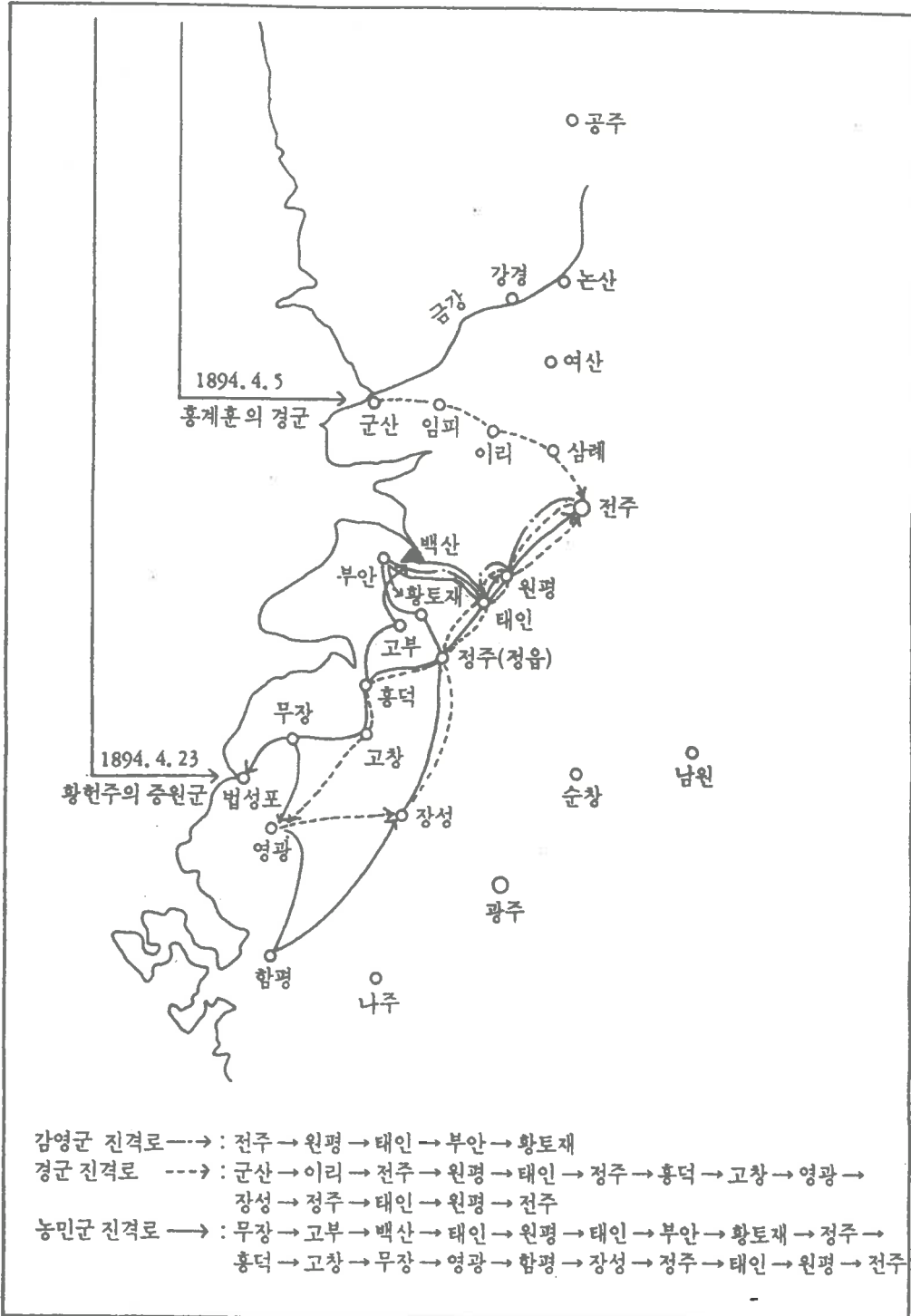
수십년에서 수백년을 거치며 당산제를 거행해 온 농민들은 민중의식이 신장되고 저항의식을 싹틔워 농민항쟁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그런 점에서 고부봉기는 학정과 수탈에 참지 못한 농민들이 봉기한 항쟁이었으며 동학도들과 접속하여 동학농민혁명을 확산시킨 도화선이였다. 고부봉기는 전봉준이 주도한 농민항쟁이었지만 동학조직과 접속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당산제와 동학사상의 신앙적 모티브와 이념체계가 일치하기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왜 하필 전라도 그가운데 고부였느냐는 당산제를 통해서 축적된 민중의식의 폭발이란 점에서 전라 우도의 당산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종교적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고부봉기상황도 <지도 1>



### 갑오농민전쟁 상황도



제1차 기병 당시 전봉준 휘하의 농민군과 경군·감영군 진격로

